

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일 평균 사망자 전년 대비 18.2% 감소

-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(1.24.~2.2.) 운영, 총 3천 222만 명 이동
- 전년 대비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도 39.7% 감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(1.24.~2.2., 10일간)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* 일 평균 발생건수는 231.3건으로 전년(383.6건) 대비 39.7% 감소했고, 일 평균 사망자 수도 3.6명으로 전년(4.4명) 대비 18.2% 감소했다고 밝혔다.

* '25.2.2(일), 24시 기준 잠정치로, 향후 경찰청의 교통사고 집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특히,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·일반국도의 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23.7건과 0.3명으로, 전년도에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57건과 1.2명과 대비하여 각각 58.4%, 75% 감소하였다.

□ 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,222만 명으로 대책기간이 5일이었던 전년 총 이동인원 2,702만 명보다 19.2% 증가한 수치이나, 일 평균 이동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3.0% 감소했다.(587만 명 → 452만 명)

○ 한편, 일 평균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3.2% 증가했다.(121천 명 → 137천 명)

□ 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통행량은 4,600만 대로 전년 2,721만 대 대비 69.1% 증가하였으나,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 대로 전년 544만 대 보다 15.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,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.

* (서울↔부산) 귀성 6시간 45분(전년비 2시간5분↓) / 귀경 9시간(전년비 10분↑)
 (서울↔목포) 귀성 5시간 20분(전년비 2시간20분↓) / 귀경 8시간 35분(전년비 1시간45분↑)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대책기간 중의 전국적인 대설 상황에 대응하여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대책기간 동안 제설장비 8,900여대, 제설인력 1만 7천여명을 투입하고, 제설제 약 11.2만 톤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.

- 또한,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,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(VMS),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감속 운행 등 안전운전 안내를 실시했다.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”면서,

- “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의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해서,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	최효준 (044-201-3786)
			주무관	권희만 (044-201-3793)